

보도시점

배포 후 즉시

배포

2026. 8. 23.(일)

**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조세지출을
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은
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부처 간
사전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항이며,
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현행 제도를
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
마련하였습니다.**

< 보도 내용 >

- '26.8.23. MTN은 「철도 부가세, 영세 대신 재정지원 전환에… 재정부·기획처 '동상이몽」」 기사에서,
 - “재정부는 ‘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’는 방침이지만, 기획처는 ‘현재보다 재정지원을 더 늘리는 것은 무리’라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”,
 - “재정재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인 데다, 특히 민간철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”,
 - “기획처 관계자는 ‘재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는 부분은 누구도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’이라고 말했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관계 부처 입장 >

-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및 재정지원 전환 조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부처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추진 중인 사항으로,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정부는 지원방식 전환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사업에 대해 영세율이 지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*를 세제개편안에 반영하였으며,

* (신규건설) '26.12.31. 이전 실시협약 체결,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

(개량·증설) '27.12.31.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

○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	책임자	과 장	이종수 (044-215-43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호 (jadalake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	책임자	과 장	김건민 (044-214-23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영 (zudoro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	책임자	과 장	박현창 (044-214-27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재현 (parkjae86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숙진 (044-214-3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수 (ksckth470@korea.kr)